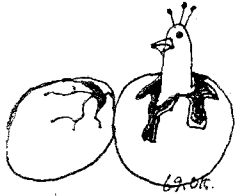


# 특집 : 1970년의 양계전망

“하루의 설계는 아침에, 일주일의 설계는 월요일에, 일년의 설계는 일월에”라는 말이 있다. 금년의 양계를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설계하기 위하여는 일월에 모든 준비가 끝나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양계는 막연히 구상만 가지고는 정확한 설계가 어려울 것이다. 정확한 통계에 기반을 둔 청사진만이 당신의 자금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으리라. 여기 일년의 양계를 점쳐보는 특집을 마련하였다.

1970년의 부화전망  
1970년의 부로일러 전망  
1970년의 사료 전망  
1970년의 채란계 전망

◇ 특 집 ◇



# 1970년 부화업계의 전망

이 계 조  
 <한국부화협회 이사>

## 1970년도 부화업계의 주변

1968년은 우리 부화업계에 있어서는 많은 희망을 준 해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큰 실망을 준 해이기도 하다.

67년말 전국 닭 보유수는 1,600만수로 추산되던 것이 68년 6월경에는 2,500만수가 되어, 약 1,000만여수의 닭이 불과 몇 개월 사이에 부화장에서 생산되었다는 계산이 된다. 이러한 호경기에 힘입은 부화업계는 종계사 및 부화기 증설에 과감한 투자를 하면서, 외국계를 최대한 수입하였다. 68년 부화업계는 년 수입량에 비하여 2배가 훨씬 넘는 15만수의 산란용 종계를 수입하였다. 그러나, 68년말에 접어들면서, 시

작된 난가와 계육값의 폭락은 긴 겨울을 넘기고 69년 봄까지 계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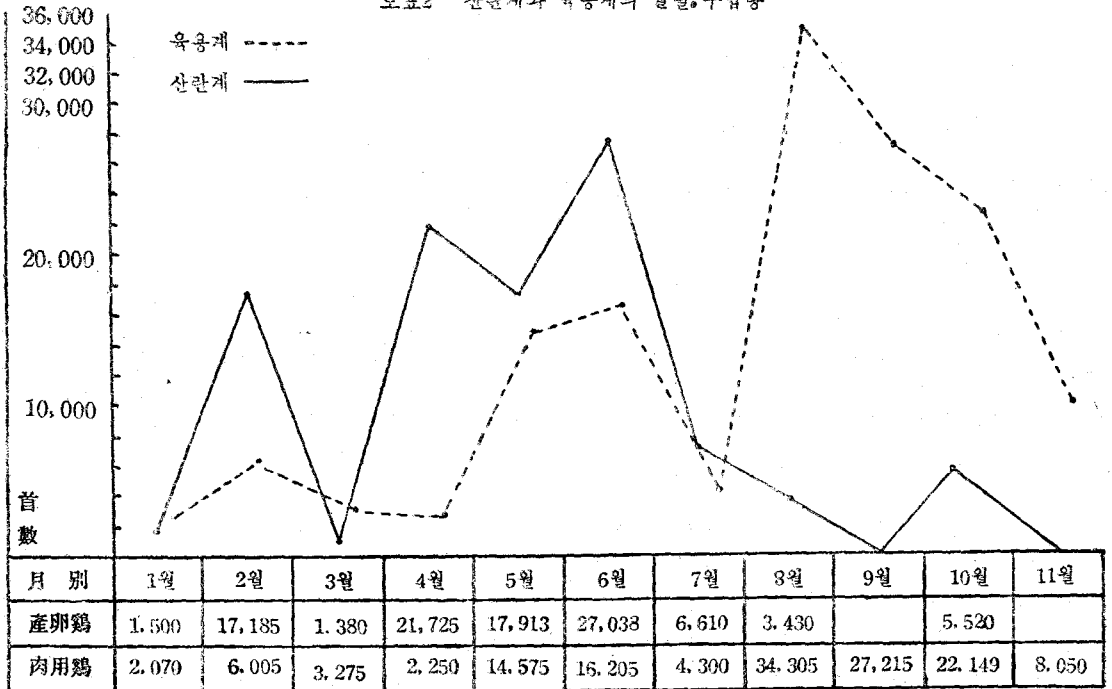
69년도 부화장 예약 장부에 기록된 예약 수수는 아주 줄었으며, 예약을 취소하는 사람도 있었다. 대개 소군 양계가를 고객으로 하던 부화장 일수록 타격은 컸다. 특히 69년에 희망을 걸고 계사 증설과 종계 수입에 과감했던 부화장들은 큰 시련을 겪어야만 했다.

<표 1> 외국계 수입 상황

	산란계	육용계	합계
1967년도	60,065 수	87,295 수	147,360 수
1968 "	150,420 "	67,005 "	217,425 "
※1969 "	102,301 "	140,399 "	242,700 "

※ 수입량은 1969년 1월부터 11월말까지의 통관분입

도표2 산란계와 육용계의 월별 수입량



**69년 불경기에 위축된 산란 종계 수입**

70년도의 병아리 생산을 추정하는 데에는 무엇보다도 69년도의 외국 종계 수입 상황을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1에서 68년도 외국계의 수입 상황을 보면 산란계와 육용계의 수입 비율이 7:3인데 비하여 69년도의 산란계와 육용계 수입 비율은 4:6으로서 전년에 비하여 난용 종계의 수입이 대단히 감소하였고, 대신 육종계가 많이 수입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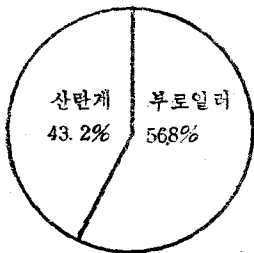
69년도의 산란계와 육용계 수입량을 월 별로 표시하면 표 2와 같다.

표 2를 보면 산란계 수입량 중 대부분이 이미 69년 6월말 이전에 수입이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67년 후반기에 수입된 난용 종계와, 이미 수입된 하이라인과 와렌의 조부모계(G.P.S)를 통하여 생산되는 종계를 합하면 70년 초에는 약 20만수 이상의 수입 난용 종계가 산란하는 셈이 되고 양계가가 원하는 수입종 난용 조생추는 부족됨이 없이 충분히 공급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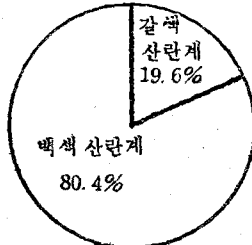
표 3을 보면 69년도 난용 종계 수입량 중에서 갈색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20%나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69년도 산란계와 부로일러의 輸入比



수입된 난용종계중 갈색계와 백색계의 비율



근래에 와서 백혈병이 문제의 질병으로 등장함에 따라 근본적으로 백혈병에 저항력이 강한 갈색 산란계의 사육이 증가하고 있는 점, 준육용계(세미 부로일러) 및 국내 교배종 산란계 생산에 대형 갈색계 암탉이 많이 이용되고 있는 점,

난가가 하락하여도, 갈색란의 가격이 비싸고 판매가 용이한 점 등이 작용하여, 특히 69년에는 갈색 산란계의 수입이 현저하게 증가한 듯한 느낌이다.

참고로 69년에 수입된 난용 종계의 이름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백색 산란계** : 웨이버 스타크로스 288, 웰프라인 뉴 937, 웰프라인 542, 바브룩 B 300, 데므라, 키스톤, 데칼브, 호네가, 프린세스 55, 휘셔 105, 코로니알 365, 니칙 등.

**갈색 산란계** : 웰프라인 650, 웨이버 스타크로스 566, 바브룩 B 390, 개리슨 골든 섹스링크, 고도 120P, 하바드 골든 카메트, 하루코 섹스링크 등. 이외 국내 교배종 산란계도 좋은 평을 얻고 있다.

한국가금협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산란 능력 검정 성적을 보면 국내 교배종 산란계가 수입종 산란계보다 건강하고 수익성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각 부화장마다 국내 교배종을 만들기애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국내 교배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리라 믿는다.

**부쩍 늘어난 육용 종계의 수입**

근년에 와서 비약적으로 이룩된 경제 성장과 생활 수준의 향상, 우육(牛肉) 가격의 상승, 계육 생산 및 공급의 구조 변화 등으로 닭고기의 소비량이 날로 증대되고 있어 전년에 비해 2배 약 14만수를 수입했다.

69년에 비하여 70년도에 있어서는 계육 가격의 변화가 비교적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된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69년도에는 산란용 종계보다도, 육용 종계의 수입량이 더욱 많아 종계 수입의 경향이 변천하는 데 주목할 수 있다.

표 2의 69년 전용 육계의 월별 수입 상황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1월부터 5월까지 사이에 수입된 것은 20%에 불과하고 나머지 80%는 후반기에 수입하여, 70년도 여름철 부로일러 성수기에 맞추도록 하고 있다.

69년에 수입된 육용 종계의 대부분은 70년 5

월 이후면 종란을 생산하게 되며, 여름철이 지날 무렵이면 수입 전용 육계 초생추의 생산 수수는 지난 해의 같은 달에 비하여 2 배 이상 될 것이다. 그러나 부로일러를 기르는 사람들의 요구량을 충족시키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69년도 육용 종계 수입 내역 중 부로일러 암병아리의 수입량이 122,400 수인 데 비하여 숫병아리의 수입량은 18,000 수라는 점은 흥미를 끄는 일이다.

숫병아리의 육성 중의 폐사율과 성계시 8:1의 교배 비율을 감안한다고 하여도, 약 3,000 수 이상의 숫닭이 남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이들 숫닭은 인공 수정 방법으로 대형 산란계들과 교배되어 실로 막대한 숫자의 준용 육계(세미 브로일러)를 염가로 생산하는 데 공헌하게 될 것이다. 그 외에 적어도 20만수 이상의 난용 종계에서 생산되는 거대한 양의 감별추 중에서 숫병아리가 영계용 병아리로 판매될 것이다.

70년의 부화업계는 비교적 착실한 성장을 하

게 되리라 예상되지만, 가끔 질병에 의한 도전을 받을 것은 틀림없다.


부화협회 회원들은 과거 2~3년간 산란을 몇 %를 올리기 위하여 힘쓰기보다는 질병 예방에 더욱 날카로운 신경을 써왔다.

더욱 튼튼한 병아리를 생산하기 위하여 계사 청결, 종란 취급 방법의 개선, 종란 훈증 소독, 병아리 수송 상자에 이르기까지 더욱 세심한 연구와 노력을 하고 있다.

70년도부터는 부로일러의 생산 공급 구조가 조금씩 달라져 가리라 본다. 이미 서울에는 부화장을 대신하여 병아리의 예약을 대행하는 회사가 생겼는가 하면, 병아리와 사료를 공급하여 주고, 생산물을 처리 가공 판매하여 주는 인터그레이션 시스템에 진일보하는 기미가 보인다.


끝으로 69년도에 수입된 육용 종계의 이름을 열거하면 아바에이커, 웰프라인, 코브, 스타브로필치, 인디안리버(G.P.S), 미트닉, 데칼브 U, 웰프라인 220, 하바드 663, 코로니알, 부로일러 고도 603(P.S)등이 있다.

\* \* \* \* \*



**세계의 경제계 : 바브콕 B 300**

**육계의 왕 자 : 피루치**



안 양 부 화 장

경기도 사흥군 안양읍 안양리 622

(전화 : 안양 2048)

\* \* \* \* \*